

추석 예배 모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비도 많이 쏟아졌고요. 더위가 늦도록 이어질 것 같았지만,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다고 전해줍니다. 추석이 되었으니 그럴 때도 되었습니다.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만큼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지 침

- (1)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예배상(床)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송 말을 사람과 가족이 함께 나눌 축하하거나 위로할 순서들을 미리 준비하면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 (3) 상차림은 하지 말고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합니다. (제사가 아닌 예배입니다.)
- (4) 불신 가정에서는 음식 준비와 의식에는 참여하지만, 절은 삼가야 합니다.
- (5) 성묘 때도 제사와 술을 붓는 일은 금하고 가족의 화목에 힘써야 합니다.

2. 예배 순서

개 식 사 (인도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올해도 우리 가정을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같이, 인도자의 개회 기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찬 송 - 15(55), 79(40), 301(460)장 중에서 택일 - 다같이(※괄호 안은 통일찬송가)

기 도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몹시도 뜨겁고 폭우로 걱정도 많이 했던 여름을 잘 보내고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가족의 건강과 안전, 아이들의 학업과 장래도 지키시며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마태복음 5:13 - 16, 신약 6 쪽)

특별찬송 (준비된 가족 - 준비가 어려우면 생략해도 됩니다.)

말씀 (제목 :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가정 - 말은이)

빛이 없으면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쫘쫘 얼어붙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소금이 없으면 간이 맞지 않아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다.

1. 소금처럼 녹아집시다.

소금은 음식물이 썩지 않게 하고 간을 맞춰 맛이 나게 하지만, 녹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녹아서 스며들 때, 소금 구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녹아서 사라지는 듯하지만, 생선 살 속으로 스며들어 맛이 나게 하고, 배추에 스며들어 맛난 김치가 되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녹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자신을 드러내며 다투면 모두가 힘들어지지만, 나를 녹여 섬겨주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2. 세상의 빛이 됩시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이라도 전등이 켜지면 환해지듯이, 이 세상도 빛이 비치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만큼 이 세상이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 되신 예수님께 빛을 받아 반사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3. 작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봅시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밍시다. 안 해도 되지만 친구를 위해 내가 하고,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로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형편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정별로 혹은 가족이 돌아가며 감사할 일과 기도를 바라는 제목을 나눈 후 함께 손을 잡고 통성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 - 384(434), 428(488), 552(358)장 중에서 택일 -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